

“전북 추진 철도사업, 국가철도망 반영을”

도내 상공인들, “전북도 요구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1개만 반영 경제성만 강조하다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균형발전 역행” 반발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전북이 제2차 중인 주요 철도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 군산, 익산, 전북사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는 28일 익산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 전북추진 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전북상협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 22일 국토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중 전라선 고

속화 철도사업 1개만 반영된데 대해 상공인과 도민 모두는 허탈한 심정을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하다 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등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본사업으로 지정된 43개 사업 중 서울과 경기도 22개, 강원권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우리 전북의 경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전남과의 공동사업

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 전북을 패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북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아시아의 식품 수도로 키우는 필수사업이며 전주~김천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5개 철도사업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 선순환 체계 마련 계기

산업부,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8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탄소소재 산업분야 수요 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대협력 협의체로, 이날 행사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탄소노산산업협회장, 워킹그룹별 기업 관계자, 탄소중립 테크포럼 연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발족식은 탄소소재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 선포 및 운영계획 발표, 유망 품목 워킹그룹 협의식, 얼라이언스 간담회, 2050탄소중립 테크포럼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족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수요산업 진흥·유망품목 워킹그룹 및 탄소중립 워킹그룹으로 구성되며,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발굴 및 기획하게 된다.

얼라이언스 및 각 워킹그룹은 분기별 정기 및 비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사업 심의 ▲매주 주요산업과 연계한 산업 발전계획 제언 ▲유망품목 시장진출을 위한 실행 방안 기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발족으로 산업 지원·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단계적·시의

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진흥의 계기로 삼아, 향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 그리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 할 계획이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오늘 발족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재단계부터 폐기제품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거점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과 공정개선, 환경영향 평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첫 방문 환자 '원스톱서비스' 실시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고싶은 예수병원, 치료받고싶은 예수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종합병원에 처음 방문하는 환자들은 접수부터 진료, 검사, 수납까지의 과정이 낯설고 진료실 및 검사실 위치 등이 익숙하지 않아 병원 이용이 쉽지 않다.

예수병원은 환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환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데스크포스크립을 구성해 솔루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병원은 5월부터(처음오신분 창구를 신설해 신환전용 병원 안내장과 불펜이 담긴 파우치를 제공)하고 접수부터 상담, 수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신환 동행도우미를 통해 환자들이 병원 이 낯설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환 스티커를 부착한 고객을 전직원이 알아보고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김철승 병원장은 “한번의 방문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윤상 기자

‘전주 국제영화제를 신고’

현대차 전주공장, 영화제 셔틀버스 등 지원 전주역 등에 배치 하루 40회씩 총 400회 운행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가 전북지역 대표 문화축제 중 하나인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지원에 나선다.

버스, 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를 생산하는 회사 아이덴티티를 심분 살려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열흘 간 열리는 제22회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영화제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이 돼 줄 셔틀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지원될 셔틀버스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고속버스급 고급형 차종 4대이며, 영화제 관람을 위해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주역 등에 배치돼 하루 40회씩 총 400회 운행될 예정이다.

해당 셔틀버스에는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문구를 랩핑해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화제를 홍보하는 움직임은 광고관 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전북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주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고 하니 천만마바를 얻은 듯 든든하다. 전북 대표기업과 전북 대표 문화행사가 뜻과 힘을 합친 만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흥행 성공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기우쳤다.

/원주=이종복 기자

계 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와 관련, 28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지원계획을 담은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코로나19 사태 외중에 어렵게 열리는 영화제인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영화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전주국제영화제 성공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전북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주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고 하니 천만마바를 얻은 듯 든든하다. 전북 대표기업과 전북 대표 문화행사가 뜻과 힘을 합친 만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흥행 성공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기우쳤다.

/원주=이종복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우리 검정콩 ‘청자5호’ 대사증후군 예방 우수

체지방 등 낮추고 공복혈당 억제 효과

국립삼립과학원에서 개발한 검정콩 ‘청자5호’가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양대학교 이현규 교수팀과 함께 검정콩(서리태)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검정콩 ‘청자5호’ 품종이 체중과 체지방, 중성지방을 줄이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4주령의 실험쥐 40마리를 고지방식(대조군), 정상식 고지방식과 일반콩(대원콩), 고지방식과 검정콩(청자5호)을 먹인 4개 군으로 나눠 6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고지방식과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에서 고지방식만 먹인 대조군에 비해 체중은 39%, 체지방률은 54%, 중성지방은 31%, 총 콜레스테롤은 34% 감소했다.

또한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의 공복혈당이 대조군 대비 47% 감소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콩(대원콩)을 먹인 실험군에서도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에서 체중 7%, 체지방률 13%가량이 더 감소해 비만과 비만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대사증후군 예방에 ‘청자5호’ 효능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

‘청자5호’는 흔히 ‘서리태’로 불리는 재래종 검정콩의 재배적 단점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품종이다. 겉모양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껍질 안 녹색 정도는 비교적 연한 편이다. 재래종보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 게 장점이다. 특히 꼬투리 달리는 높이가 높은 편이라 기계로 수확하기가 수월해 농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청자5호’ 생산량은 재래종(200kg/10아르)보다 약 70% 많은 343kg으로, 국내 검정콩 품종 중 가장 많다. 또한, 당도가 높아 맛이 좋으며 향기와 활성이 우수한 인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 1.4배 많다.

‘청자5호’는 현재 온라인이나 전국 할인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두유, 두부, 콩가루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종자는 내년 초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청자5호 식이에 따른 체중 변화〉

고지방식이대비 35% 억제



이주현 전북조달청장
현대제철 군산하치장 방문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8일 군산시에 소재한 현대제철(주) 군산하치장을 방문하고 철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각 기관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하게 철근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건설성수기를 맞아 철근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관수 철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원활한 철근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청장은 “최근 본격적인 건설성수기를 맞이해 철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각 기관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철근 수급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대주코레스, 도내 최초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도내 최초로 대주코레스(대표 박주정)가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대주코레스(주)는 자동차 차체 분야의 경량화에 대한 기술개발을 연구하게 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7억 원과 도비 1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대주코레스는 자동차 차체 분야의 경량화 기술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대주코레스는 경량화 압출 부품을 개발해 현재 차량의 스틸(강철) 대비 동등 이상의 강도와 20% 이상의 경량화를 확보하고, 스마트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품질 향상과 함께 안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 봉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주코레스는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알루미늄 압출 및 가공 전문기업이다. /유호상 기자

그린환경사랑 JB청소년 유튜브 공모 내달 10일부터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규)은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제3회 그린환경사랑 JB청소년 유튜브 공모전(UCC)을 개최한다.

다음달 10일부터 31일까지 응모 가능한 이번 ‘그린환경사랑 JB청소년 유튜브 공모전(UCC)’은 유튜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UCC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 등 내일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깊이 인식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중·고등학생 및 통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 혹은 단체로 2분에서 4분 이내 UCC를 제작해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 1개팀에게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표창장과 장학금 100만원, 최우수상 2개팀에는 각 70만원, 우수상 2개팀에는 각 50만원, 장려상 3개팀에는 각 20만원을 수여한다. 공모전 결과는 6월 5일 수상자발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우편 혹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063-250-7495)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기질성 정실질환자’ 최초 장애 인정

국민연금, 기준 확대 1만2000여명 복지혜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질성 정실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실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인정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실질환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질성 정실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실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실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쟁 장에 수강, 가스요금, 세류간편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

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2,000여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 백년가게 서포터즈’ 내달 4일까지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백년가게 서포터즈를 오는 5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백년가게 서포터즈는 지역 대학생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체험, 인터뷰 등을 통해 스토리, 특산물, 대표메뉴 등을 담은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서포터즈의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는 효과적인 SNS 홍보를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

고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블로그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전북지역 대학생이며,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전북중기청 위촉장 수여 및 우수활동자 포상, 봉사활동시간 인정, 홍보 활동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포터즈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5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haewd92@koreakr)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gov.kr/jonbuk)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